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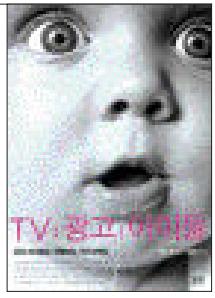
북스

Books

치밀한 '키즈 마케팅' 공세 소비 당하는 우리 아이들

TV·광고·아이들 수전 린 지음

아이들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쇼핑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안다. 마트의 이곳 저곳을 주시고 다니면서 “이것 사줘”를 외쳐대는 아이들. 부모들은 사줄 수도, 안 사줄 수도 없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부모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아이들과의 전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을 해대는 대기업들과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이다.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또는 대기업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미국 심리학자 수전 린(Susan Linn)이 쓴 ‘TV·광고·아이들’에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저자는 오랜 시간 동안 ‘키즈 마케팅’(Kids Marketing) 반대 운동을 해오면서 기업들이 부모들이 때를 쓰는 아이들에게 ‘안 돼!’라는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 대상 마케팅이 폭력적이거나 성적이고, 몸에 해로운 담배·알코올·인스턴트 식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 만이 아니다. 진짜로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접하는 광고의 양과 그 속에 배어 있는 가치관, 광고·지역사회·시민단체·전문가·정책 입안자 등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고 있다. 책은 미국의 경우 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예외일 수 없다. 포켓몬스터 카드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들녘·1만3천원>

미국서만 한해 마케팅 비용 14조

가치관 전도·충동질 등 해악 분석

부모·어린이 소비 주도권 되찾기

향은 6천억 달러(약 560조원)가 넘는 규모다.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저자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어린이 마케팅을 하는지, 어린이 마케팅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의 경우 기업의 마스코트인 ‘로날드 맥도날드’(사진)가 아이들의 편에서 광고가 나온다. 물론 맥도날드로 유인하거나 헬비거를 사먹으라는 말은 일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친숙한’ 로날드 맥도날드가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대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의 목표는 아이들의 복지나 미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파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린이 대상 마케팅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상(황금대리석상)을 주기도 한다. 저자는 정부가 나서서 당장 ‘어린이 대상 마케팅’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모들의 저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저자는 이 심각한 미래의 문제에 대해 부모·학교·지역사회·시민단체·전문가·정책 입안자 등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고 있다. 책은 미국의 경우 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예외일 수 없다. 포켓몬스터 카드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들녘·1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미국의 섹스 심벌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이들은 가수
이자 광고 모델인
스피어스가 부르는
'자기야 한 번 더'
(Baby One More Time)와 같은 노골적인 성 묘사가 담긴 노래가 된다.

▲붉은 리본=‘염소를 모는 여자’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황진이’ 등을 발표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작가 전경린이 등단 이후 10년동안 모아온 글들을 다듬어 산문집 ‘붉은 리본’을 펴냈다. 작가로서의 삶, 책, 영화, 일상에서 느낀 단상, 추억 등이 5가지 주제로 나뉘어 다양하게 실려 있다. <9천800원·웅진 지식하우스>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한국과학기술원 신동원 교수가 2004년 가을학기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를 수강한 학생 28명과 함께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삼국시대의 첨성대, 통일 신라의 에밀레종, 고려 청자, 조선시대 대동여지도 등 우리 과학사 100년의 숨은 비밀을 파헤쳤다. 광범위한 참고문헌과 전문가의 견해도 함께 실려 있다. <1만3천원·한겨레출판>

▲기억의 메타포=기억은 무엇인가. 인간은 기억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지만 모호한 개념인 기억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마는 ‘메타포(은유)’라는 독창적인 관점을 통해 기억심리학의 역사와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한다. 원제목은 메타포기계로 책의 첫 장에 나오는 ‘환각장치’에서 따온 상징적 표현이다. <1만6천500원·에코리브>

▲중세산책=독일 작가 만프레트 라이츠가 중세인의 일상과 정서, 문화와 경제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성(城)을 통해 중세인의 일상을 다룬 책이다. 중세시대의 상징물인 성의 단장부터 종말까지 성의 역사를 소개하고 성의 구조와 건축 양식, 성안의 사람들의 생활모습 뿐만 아니라 유령기사, 정조대 이야기 등 흥미진한 이야기들도 만날 수 있다. <1만9천800원·플래닛 미디어>

▲화가의 아내=화가의 연인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화가의 아내를 다룬 책이다. 작가 사와치 히사에는 렘브란트, 밀레, 마네, 르누아르 등 미술계의 거장을 탄생시킨 숨은 공로자 ‘화가의 아내’ 19명을 조명한다. 르누아르의 포동포동한 여성상이 그의 아내인 알린의 체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 화가의 아내가 자신의 작품세계에 끼친 영향도 공개된다. <1만5천원·아트북스>

▲미지막 파리오 클레오파트라=대표적인 서양 미인 또는 남자를 타락시킨 요부 등으로 인식되는 클레오파트라. 파리 8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마르탱 르라는 무지와 전설에 가려진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사후 2천년 동안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화를 조명한다. <2만5천원·해냄출판사>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인=일본과 중국의 끊임없는 역사왜곡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자출신인 작가 김병훈은 한국 역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작가는 이 책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나 언론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일본 깎아내리기, 위대한 단일민족 역사 만들기, 비극적인 현대사 외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1만2천원·빈디>

문화·미술작품속 사랑의 가치와 역사

사랑의 문화사 스티븐 컨 지음



을 알려주는 자료인데다 당시의 풍속이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속에는 다양한 작품 속 커플들이 등장한다. ‘제인에이’의 로체스터와 제인, ‘폭풍의 언덕’의 힐드리프와 캐서린, ‘더 베일 가의 테스’ 중 테스와 피어스턴 등. 그밖에 ‘안나카레니나’ ‘여인의 초상’ ‘터보가의 사람들’ 등 수많은 소설이 언급되며 구스타프 클림프의 ‘입맞춤’

등의 ‘눈맞춤’, 달리의 ‘성적 매력의 공포’ 등 그림 속 사랑이야기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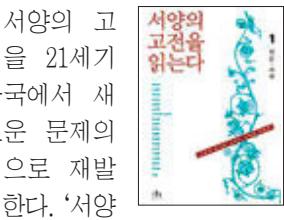
그밖에 샤르트르, 하이데거 등 철학자들의 이론은 사랑을 분석해 내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빅토리아 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 좀 더 심오하게 성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좀 더 본래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7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불빛과 분석자료로 짐은 수많은 문학작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버겁지만 언급되는 소설들을 읽어본 독자라면 그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밀글빛냄·3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1세기 눈으로 다시 읽는 고전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서양의 고전을 21세기 한국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재발견한다.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는 4권(전 4권)은 안광복(중동고 철학교사)·우찬재(서강대 교수)·이재민(휴머니스트 편집주간) 등 7명의 편집위원이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68종의 고전을 58명의 저자가 공동 참여해 만든 책이다.

1권(인문·자연)에는 소크라테스·칸트·니체·푸코·마르코폴로 등의 고전 18종이, 2권(정치·사회)에는 플라톤·루소·마르크스·보부아르 등의 고전 16종이 담겨 있다. 3권과 4권의 주제는 문학으로 운명과 성찰, 영혼과 성장, 사랑과 죄, 현실과 유행 등 각각 4가지 주제로 나뉜 34종의 고전이 소재됐다. 서양의 고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정의와 자유, 행복과 평등 등 삶의 핵심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휴머니스트·각권 1만3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 221-1140, 5210 훤 011-602-2532
(부동산인증부)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협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
포가 4~5칸 정도에 점포
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표
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
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기공인중개사

☎ (010) 234-8216 훤 011-609-0896
(부동산인증부)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총장로 대지 50평 4층 건물 26억

충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금남로 70평 7층 21억

운봉동 중심도로점 34평 170만

남성로 대지 50평 7층 건물 29억

금광로 아파트밀집 대로점 33평 85만

운봉동 터미널 대로점 34평 170만

상무구 상무로 1층 20평 120만

주원로 대로점 75평 4층 27억

주원로 아파트밀집 지하1층 27억

전원주택 1층 10평 120만

운봉동 1층 10평 120만

믿음공인중개사

☎ (010) 491-4911 훤 011-627-0876
(부동산인증부)

상가 건물 매도

첨단 쌍암동, 월계동, 삼업지역

• 대지 110평 건물 1640평 보10억 월세

2200평 대지 56억

• 대지 135평 건물 1640평 보15억 월세

65㎡평 폐도가 10억

• 대지 80평 건물 515평 보9억2천

65㎡평 폐도 28억

• 대지 30평 건물 300평 보12천원

8000평면원 대도24평 120만

• 대지 30평 건물 368평 보9,000원 월세

65㎡평 폐도 10억4천원

• 대지 100평 건물 950평 보8,000원 월세

300평면원 폐도 6억

• 대지 110평 건물 127평 1층 음식점 2층

주원로 대도 6억

• 주상가 대지 70평 건물 10평 보5,000원

월세 8000원 대도20평 120만

하이랭크 컨설팅

☎ (010) 383-5221, 훤 011-609-5221
(상무구 입구 - 구.상무대입구)

▶ 구해드립니다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주유소등 각종 투자용 부동산을 구해드립니다.

▶ 팔아드립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및 금융물건을 팔아드립니다.

▶ 계약 및 오락실부지

• 상당지 195평 흥정 800만원

• 서울 2000평 대도120평 120만원

• 경기 100평 대도 100평 100만원

• 경기 100평 대도 100평 100만원

• 경기 100평 대도 100평 100만원